

철학·신학/01/발표논문

동서양의 진화론 수용과 기독교 한국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논문초록

참고문헌

요약본/

동서양의 진화론 수용과 기독교
- 한국과 스페인을 중심으로²⁾

고운이(백석대학교 철학과 외래교수)

논문초록

이 연구는 동서양 문화 속에서 과학이론이 어떻게 전래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과 스페인의 진화론 수용을 검토하였다. 진화론은 서양보다는 동양의 전통적 생명관과 닮아서, 양국의 수용 과정에서 동양종교와는 부딪치지 않았지만 서양 종교인 기독교와는 불협화음이 있었다. 진화론이 처음 전래되었을 때 스페인에서는 카톨릭 교회 및 학계의 반발이 있었고

이후 정치적 문제로도 검열을 수차례 겪는 등 부침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사회진화론 개념을 위주로 진화론을 받아들였다. 오늘날에는 스페인 국민이 한국인보다 진화론 이해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양국의 종교 실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에서 진화론과 카톨릭의 대결구도는 이미 종식된 것에 반하여 한국의 개신교는 여전히 진화론과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제어: 진화론, 찰스 다윈, 대중의 과학 이해, 스페인, 기독교

“동서양의 진화론 수용과 기독교: 한국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논평

정대경(명지대학교 철학 외래교수)

고운이 박사는 1859년 종의 기원 출판을 통하여 제시된 생물진화이론이 스페인과 한국에 각각 사회적으로 수용된 형태를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고박사는 다윈 진화론이 수용될 당시 스페인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카톨릭 사제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3쪽), 그들에 의해 다윈 진화론이 배격되어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저명한 진화생물학자이자 철학자인 프란시스코 J. 아알라의 주장들을 통하여 진화론이 카톨릭 신앙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수용되어 진화론이 정착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4쪽) 하지만 암묵적으로 고박사는 현재 스페인 내 카톨릭 신앙이 대중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지적한다. 이를 통해 카톨릭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 확립이 어렵지 않았음을 주장한다.(5-6쪽)

고박사에 따르면, 스페인과 달리 19-20세기 초반 한국은 “힘을 키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진화론을 급속하게 수용할 수 있었고, 덩달아 다윈 진화론도 쉽사리 수용되었다.(5쪽) 하지만 1970-80년대 급속도로 개신교가 확장되면서, 그리고 나아가 창조과학이 대두되면서 한국 내 다윈 진화론에 대한 반감이 점차적으로 증대되어 현재에는 개신교의 창조론과 다윈의 진화론이 대립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6-7쪽)

이러한 현상 이면에 고박사는 동서양의 사상적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스페인에서 다윈 진화론이 초기에 수용되기 어려웠던 원인이 사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카톨릭 신앙체계라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들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출현하였다는 다윈의 “생명의 나무” 개념, 생물 종들이 끊임없이 “종분화”로 인해 변화하고 종들의 수가 증가한다는 이해 등은 카톨릭교회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이해, 곧 기독교적 가르침과 헬라철학적 사고의 종합인 모든 종들은 고정되어 있고, 각각의 종들은 일정한 시점에서 창조되었다는 기독교적 사유와 양립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제들이 진화론을 사상검열을 통해 통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에, 고박사에 따르면, 동양적 사상은 유일신과 인격신 개념이 없는 범신론적 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것을 지배적인 하나의 신이 창조하였다는 서양 기독교의 주장과 달리 동양적 사상에는 단일 신에 의한 창조라는 이해가 없다. 또한 동양적 사상은 “‘만물’은 항상 변화”한다는 이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윈이 제시한 우연을 기초로한 (유전)변이와 자연선택의 진화론, 종들의 변화와 같은 이해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고박사는 서양의 기독교가 담지하는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과 달리 동양사상에서는 인간이 다른 생물로 변신하는 모티프나 윤회 같은 개념들이 나타나는바, 인간이 진화과정을 통해 출현하였다는 진화론이 충격적이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하는 듯 하다. (2-3쪽)

이상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고박사는 초기 스페인에서 카톨릭 신앙이 실제로 영향을 미칠 때는 진화론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후기에 이를수록 그것이 종교현상이 아닌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진화론이 수용되었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하지만 스페인 사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기독교가 자리 잡기 이전인 초기 한국에서는 동양사상과 양립가능한

진화론이 무리 없이 수용되었는데, 70-80년대 이후 기독교가 급속도로 한국 사회 안에 팽창되면서 이와 더불어 진화론의 입지가 위태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고박사는 동양사상은 진화론과 무리 없이 양립 가능하지만, 서구식 기독교 사상은 다원 진화론과 양립불가함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기독교 신학 전통 안에서 자연원인과 비자연원인 사이의 양립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시되어왔다. 어거스틴은 우리는 “존재의 바다에 떠있는 스펀지”와 같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이해 안에서 그는 당대의 급진적 자연발생(Spontaneous Generation)과도 같은 자연철학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적 가능태-실현태를 바탕으로 씨앗창조론과 같은 창조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독교 신학 전통은 현대 이중행위(Double-Agency) 이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기독교의 창조신앙은 자연선택과 변이를 통해 모든 생물 종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출현하였다는 다원진화론과 양립가능하다. 고박사 또한 “유신진화론”을 몇 차례 언급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듯 하다. 만약 그렇다면, 스페인과 한국 상황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기독교 종교와 자연과학,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의 관점을 통해서 분석가능하지 않을까? 또한 진화론 수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진화가 대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철학자 이안 G. 바버의 종교와 과학에 관한 4가지 유형론적 입장 중 성서문자주의자와 무신론적 진화주의 혹은 존재론적 자연주의가 대립하는 것으로 재고 볼 수 있지 않을까?